

현역 국회의원 3명·정치평론가·교수 등 출마 ‘별들의 전쟁’

■ 누가 뭐나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구다. 현역 의원이 3명에, 인기 정치평론가까지 나서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새누리당에서 장귀석(62) 광주전남 지방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신문식(61) 의원과 곽동진 전 국방부장관 비서관이 출마했다.

또 국민의당에서는 김철근(47) 동국대 겸임교수, 김승남(49) 의원, 김범태(61)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황주홍(64) 의원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여기에 김동철 전 전남도 교육위원이 국민의당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와 김동철 후보는 보성, 곽 후보는 장흥, 황 후보는 강진이 고향이다. 나머지 후보는 모두 고흥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장귀석 한국경제인협회 전남부회장이 지난 12일 공천을 확정지었다. 장 후보는 광주대 산업대학원을 나와 중앙대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장 후보는 “지역의 현실을 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잘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며 새누리당에 참여했다”며 “지역의 일꾼으로 뚝뚝뚝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신문식 의원이 출마한 상황에서 뒤늦게 지난 9일 곽동진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이 뛰어 들어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신문 의원은 민주당이 만들어진 지난 1955년에 태어나 민주당과 동갑내기다.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대선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30년 동안 당료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8월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름 장귀석	곽동진	신문식	김범태	김승남	김철근	황주홍
나이 62	52	61	61	49	47	64
약력 ·현 광주·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 ·현 청암대 특임교수	·현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현 국방부장관 비서관	·현 국회의원 ·현 당 조직본부수석 ·현 조신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현 특랑만환경보존 회장 ·현 조신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현 국회의원 ·현 민주통합당수석 사무부총장	·현 동국대 겸임교수 ·현 새정치전략연구소장	·현 국회의원 ·현 강진군수



새누리 장귀석 청암대 특임교수 공천 확정

더민주 신문식 의원에 곽동진 연구위원 경선 도전

국민의당 황주홍·김승남·김범태·김철근·김동철 경쟁

한명숙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김성국 전략공천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출마를 강력히 권유,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 과정에서 고흥 출신으로 이 선거구 출마를 타진하던 한승철 전 감사장과 윤종자 전 인천경찰청장이다 다른 지역구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지금까지 경험과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호남민심을 제대로 알고 처방하는 정치의사가 되고자 한다”며 “30년간 수많은 선거에서 단련된 현장정치, 민생정치를 통해 호남민심 이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곽동진 예비후보는 아버지 고향인 강진

이지만 장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저에게 정치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놓지 않은 세 가지 꿈이 있다”면서 “호남차별 해소와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고향 발전 등이 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5명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다. 경선 후보가 ‘2명이나 3명이나’가 경선 변수다. ‘빅3’로 꼽히는 황주홍·김승남·김철근 후보 3명이 경선하면 고흥표 분산이 나타날 것이나 고흥 출신 후보 1명과 강진 출신인 황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면 지역간 대결구도가 돼 인구가 많은 고흥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과 건

국대 교수, 3선 강진군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및 전국 농어민 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의원은 ▲쌀 도정사업 진출하려면 대기업(롯데상사)의 계획 저지 ▲공공비축미 정부 우선지급금 인차 저지 ▲전남 쌀 푸대접 문제 최초 제기 ▲쌀 고정부담금 인상 등을 의정활동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하는 자리에서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재선이 되면, 호남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덜 싸우고, 더 일하며 낙후된 호남을 일으켜 세우고, 당대표에 도전하여 국민이 주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정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며 “지역민들과 함께 정권교체, 호남발전, 정치쇄신을 이루고 새로운 호남,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장과 민주당 부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등을 지내다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 4년 시장개발 등으로 황폐화 되는 농어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무역이특공유제 도입을 통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주

도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 관철 ▲쌀 15만7000톤 추가 시장 격려 ▲자연재해 시범 실시 4년 만에 ‘자연담미’ 브랜드화 성공 등의 성과를 냈다.

김 의원은 더민주 탈당과 국민의당 입당에 대해 “민심은 지금까지 구태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의 문제를 의제화시키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치집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정치 복원을 통해 제3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통합적 리더십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재선 도전에 나섰다.

김 겸임교수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안철수진심캠프 대외협력위원, 박원순서울시장후보 조직특보, 새정치전략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방송채널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왔다. 안철수 대표가 인재영입 차원에서 발명한 후보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해야 하며 그래야 그 바람이 충청도를 뚫고 수도권을 가서 제1야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부로 오면서 성장률 3% 내외로 떨어진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호남이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데 하나의 밑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와 특랑만 환경보존회 회장을 맡은 김범태 예비후보는 “지역의 토호 기득권세력을 혁파하고 정치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인물교체와 야당교체를 통한 호남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앞장서고 호남인의 자존감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관전 포인트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비례), 국민의당 황주홍, 김승남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에, 방송에서 이름을 알린 정치평론가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까지 선거전에 뛰어 들어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펼쳐지게 됐다.

더민주 신문 의원은 곽동진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신문 의원은 현역 의원의 장점이 있고 곽 후보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어 신문 의원이 유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벌써 본선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국민의당 경선전은 더욱 치열한 상황이다. 4개 군이 합쳐지면서 고흥·보성의 현역 김승남 의원과 장흥·강진·영암 현역인 황주홍 의원, 두 명이 맞대결을 펼치게 된

국민의당 황주홍·김승남·김철근 경선 최고 흥행카드

것이다. 여기에 스타 정치평론가까지 가세, 최고의 흥행카드로 떠올랐다.

이 선거구의 유권자 분포도를 보면 고흥이 6만673명, 보성이 3만9305명, 장흥이 3만4736명, 강진이 3만3086명으로 기존의 고흥·보성 유권자가 장흥·강진보다 3만2156명 더 많다.

현역 의원 간 대결 구도에서는 김 의원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 의원과 김 겸임교수는 고흥 출신이다. 황 의원은 강진 출신이다 3선 강진군수를 지냈다. 고흥 표는 두 후보가 나눠가진 데 반해 강진 표는 황 의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

게 됐다. 이 때문에 후보들 대부분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보성과 장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사무소의 경우 김승남·김철근 후보는 고흥, 신 후보는 보성, 황 후보는 장흥에 각각 넓지만 대부분의 선거운동을 보성과 장흥에서 하고 있다.

장흥에는 전남도 공무원교육원과 교통연수원의 강진 이전이 쟁점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장흥군과 강진군이 유지 경쟁을 벌였는데 우연히도 두 기관 모두 강진으로 이전하면서 장흥군민이 소외감을 느낀 때문이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 선거구 특징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는 19대 총선의 고흥·보성에 장흥·강진·영암 선거구 중 장흥과 강진이 합쳐져 만들어진 4개 군의 거대 선거구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나타난 옷치못할 현상으로 문화가 다른 군을 한데 묶은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고흥에서 장흥, 강진으로 광범로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을 정도다. 고흥에서 벌교로 가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다. 사법관할도 장흥·강진군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관할인데 반해 고흥·보성은 순천지원 관할로 나뉘어져 있다.

면적 상으로 2558.37㎢로 기존 전남에서 가장 큰 선거구였던 담양함평영광장성의 1839.80㎢보다도 더 넓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인구는 고흥 6만8413명, 보성 4만

고흥·보성에 장흥·강진 합쳐져... 소지역주의 우려도

5170명, 장흥 4만1584명, 강진 3만8421명으로 모두 19만3588명이다.

4개 군이 합쳐진 선거구인 만큼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19대 총선 고흥보성 선거구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승남 후보와 무소속 김철근·신종식·김범태 후보가 출신 지역인 고흥의 표를 각각 45.84%, 10.15%, 30.08%, 10.60%로 나눠 가졌다.

승남은 보성 유권자들의 표심에서 갈렸다. 당시 보성 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 김승남 후보에게 61.99%의 득표율로 표를 몰아줬다. 보성 후보가 없었던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표가 집중된 것

이다.

장흥·강진·영암 선거구에서도 황주홍 후보는 출신지역인 강진에서 69.2%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시 황 후보는 무소속 유인학 후보의 고향인 영암에서는 44.67%, 장흥에서 43.81%를 얻는데 그쳤다.

고흥군의 인구가 많은 만큼 출신 후보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 김철근 예비후보, 김범태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새누리당 장귀석 예비후보는 보성,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강진 출신이고, 더민주 소속의 곽동진 예비후보는 장흥이 고향이다.

·박지경기자jzkpark@kwangju.co.kr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원광주안과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 강호철 교수(화순전대병원)
-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임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